

닭과 닭고기 부위별 특성(1)

목 차
1. 닭의 기원과 일생
2. 속담속의 닭 이야기
3. 좋은 닭고기를 고르는 요령
4. 닭고기 부위별 특성과 상품화



장 영 수
축산물위생교육원 교수

1. 닭의 기원과 일생

닭은 꿩과에 속하는 조류로 동물학적 분류로는 척추동물문 조류강, 순계류목, 치계과 계속에 속한다. 조류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의해서 가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기는 약 3000~4000년 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닭의 품종은 수백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조상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4종류의 들닭(야계)으로 알려져 있다.

- 말레이시아, 중국남부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적색야계
- 실론섬의 대나무숲 지대에 야생하며 깃털

색은 감색을 띄고 있으며 빛의 중앙부위가 황색인 것이 특징인 실론야계

- 인도 서남부 및 중부지방에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깃털은 회색이지만 목 부위의 깃털에 황금색의 반점이 있는 회색야계
- 자바섬의 밀림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깃털 색이 녹색인 녹색야계의 4종이다.

이들 야계중에서 적색야계만이 닭과의 1대 잡종에 번식력이 있고 다른 3종은 번식력이 없었기 때문에 분포지역이 넓은 적색야계를 닭의 조상으로 하여 여기에 이미 멸종된 다른 야계의 유전인자가 약간 섞여 현재 닭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닭의 가금화 동기는 계란이나 닭고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목

적보다는 종교적인 목적과 오락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가금화되었다가 점차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르게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따라서 가금화된 초기부터 식육용과 난용으로 사육되기보다 관상용과 종교상의 의식용, 지역에 따라서는 투계용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등 용도가 다양했다.

닭을 경제적인 동물로서 실용화하여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제국시대부터 이지만 근대적인 육종을 시작한 것은 난용종이 160년 전, 육용계가 약 50년 전부터이다. 최근 들어서는 크게 계란을 얻기 위한 난용종과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육용종, 그리고 고기와 계란을 동시에 이용하는 난육겸용종, 그리고 드물게 애완용종으로 용도를 나누기도 한다. 난용종에는 백색레그혼과 갈색레그혼이 대표적이고 난육겸용종에는 프리머스룩과 로드아일랜드레드, 뉴햄프셔가 대표적이다. 육용종은 백색 코니쉬와 백색 프리머스룩, 코친 등이고 애완용종에는 일본계를 들 수 있다.

닭의 일생에 대해 살펴보면 계란은 약 21일간의 부화기간을 거쳐 병아리로 태어나며 종계의 병아리는 약 180일간의 육성기간을 거쳐 약 10개월간 산란한다(종란 채취기간은 280일간). 식육용으로 사육되는 병아리중 소형은 약 7주간 사육되어 체중이 약 2.3kg 정도 되었을 때 출하하고 대형으로 사육되는 것은 약 8주간 사육되어 체중이 약 2.7kg 정도에서 출하한다. 이밖에 후라이드 치킨용으로 40일간 전후로 출하되는 것도 있다. 이들이 출하되기까지는 주로 배합사료가 주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2.2~2.3kg의 먹이를 주었을 때 체중이 약 1kg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가격이



싼 것도 앞에서 보듯이 고기로 생산되는 사육일수가 짧은 점과 곡물을 고기로 바꾸는 사료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된다. 닭은 머리, 목, 몸통, 꼬리, 날개, 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는 얇고 부드러우며 땀샘이 없어 땀이 나지 않으므로 체온의 발산과 수분의 배출은 호흡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육특성을 보면 잡식성으로 아무것이나 잘 먹기 때문에 놓아 먹여도 되고 특히 해충을 잡아 먹어 병충해 방지에도 한 몫을 하며 각종 질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잘 자란다.

또한 다산성이기 때문에 번식이 용이하고 인간에게 많은 알(계란)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는 풍부한 영양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서의 효용성도 높다. 식용의 역사가 긴 만큼 닭을 사용한 음식의 종류도 다양한데 특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삼계탕이나 영계백숙 등은 대표적인 보양음식으로 지금도 기력이 떨어지거나 식은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양계**